

##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허 남 순  
(한림대학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

### 차 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내용
- II. 이론적 배경
  - 1. 미혼모의 정의
  - 2. 미혼모 발생의 원인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의 대상
  - 2. 연구의 도구
  - 3. 조사 실시
  - 4. 통계 처리
- IV. 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서구 산업사회에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가 바로 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Social Work<sup>10)</sup>에 나타나 있는 정의를 보면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팀<sup>11)</sup>은 미혼모는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중절을 한 경우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지열은<sup>10)</sup> 미혼모란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별거했거나 이혼했거나 과부로서 본 남편 외의 아기를 가진 여자가거나 혹은 미혼으로 아기를 가진 여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 의하면 미혼모란 혼전이나 혼외의 임신은 했으나 분만하기 이전에 유산을 한 경우까지도 미혼모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1970년 이전 법적으로 유산이 허가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임신이면 모두 아기를 출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신한 여자 모두를 미혼모로 간주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임신한 여자 모두를 미혼모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정의를 보다 협의적으로 규정하여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갖은 아이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전 또는 혼외에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중절을 한 여자와는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미혼모 발생의 원인

청소년들의 임신과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특별히 미국의 경우 미혼모의 발생원인을 밝혀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여러 학자들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Jessor and Jessor<sup>11)</sup> Cuetkovich and Grate<sup>12)</sup> 그리고 Katner and Zelnik<sup>13)</sup> 등은 미혼모의 발생 동기를 여러 변인들 즉 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 경제적 조건, 교육, 가족관계, 성취동기의 수준, 성격 등에 비추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Stalk, Raimster, Ladner<sup>14)</sup> 등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무력감과 상실감 또는 부족한 자신감이 청소년 임신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Finkel 과 Finkel<sup>15)</sup>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청소년 임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여성개발원의 연구결과<sup>16)</sup>는 미혼모의 낮은 교육정도, 결혼가족, 가족의 소득수준, 부모의 폐쇄적인 성태도, 낮은 자아 정체감 그리고 친구의 개방적인 성태도가 미혼모 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혼모 발생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것은,

- 1) 개인의 성격적 요인
- 2) 개인의 가정적 요인
- 3)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
- 4) 개인의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 등이다.

이제부터는 위의 요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1) 개인의 성격적 요인

성격이란 personality의 역어로서 인격, 인성, 개성, 사람의 됨됨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격이란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을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내부에 있는 어떤 것이다.<sup>17)</sup> 성격적인 요소가 미혼모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Giel과 Kidd<sup>18)</sup>는 5년 동안 Edinburg 대학의 학교 보건소에서 혼전에 임신을 하여 도움을 청한 학생들과 보건소를 이용하였으나 임신을 하지 않은 57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비교·조사하였다.

혼전에 임신한 57명의 학생들 중 26명의 학생들은 임신하기 이전에 이미 현저한 정신장애 때문에 학교 보건소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비하여 비교집단에서는 단 9명만이 정신적인 문제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를 통해서 Giel과 Kidd는 적어도 어떤 미혼모들은 그 원인이 성격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arker<sup>19)</sup>는 고등학교 학생 중 재학중에 임신을 한 117명의 소녀들과 유사한 가정배경을 가진 117명의 임신을 하지 않은 소녀들에게 MMPI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결과는 혼전에 임신을 한 소녀들이 더욱 활동적이고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다 사회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Khlerzas와 Pagliar<sup>20)</sup>는 미혼모들은 반사회적인 성격부터 정신분열성 성격까지 다양한 성격장애가 있고 성격장애의 정도는 가벼운 사람부터 심각한 사람까지 있다고 하였다. Eysench<sup>21)</sup>는 100명의 정상 집단과 100명의 미혼모 집단을 대상으로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혼모들은 외향성과 신경증의 점수가 다른 정상적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Robert와 Robert<sup>22)</sup>, Butnam과 Kamm<sup>23)</sup>, Hodgson<sup>24)</sup>의 연구결과들은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미혼모 발생의 원인으로서 성격적인 특성은 뚜렷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한 학자들도 있다. Vincent<sup>25)</sup>는 50명의 정상 집단과 50명의 미혼모 집단에게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혼모 집단과 일반 집단 사이에 약간의 성격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의미있는 것은 아니며 그 차이 역시 임신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라 달라질 수 있다,<sup>40)</sup> 또는 이성교제시 성관계는 맺을 수 있다<sup>41)</sup>는 등의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한 성관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전통적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한 성관념도 갖고 있어서 성문제에 대하여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청주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성교제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괜찮은지 안될지 잘 모르겠다고 한 여학생들이 16.57%나 된다.<sup>42)</sup>

혼전의 성관계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여성은 왜 순결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없다면 상대 남성의 유혹이나 강요 또는 자신의 성적인 충동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성에 대한 강하고 명료한 태도는 행동의 일관성을 나타내게 되지만 약하거나 양면 감정적인 태도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Vincent<sup>43)</sup>는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이었어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위협적이 아니고 부정적이 아닌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개인은 그에게 모순 또는 그의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에 직면하게 될 때 혹은 더 큰 가치 또는 보상을 느끼게 될 때 종래 가지고 있던 성관습을 바꾸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 무조건적이고 전통적인 성도덕만을 강요받다가 직장이나 사회를 통하여 혼전 성행위가 허용되는 가치를 가진 집단에 접하게 될 때 성에 대하여 혼란된 감정을 갖게 되며 보다 허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다. 이들은 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중간단계의 성도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라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혼전 성관계가 괜찮지만 나는 안된다는지, 또는 가능한 혼전 성관계는 안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혼란되고 모순된 태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명료하지 못한 태도는 행동과 감정의 갈등을 가져오며 혼전 성행위를 예측하거나 피임대책을 세우는 데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갖게 한다. 성에 대하여 보다 명료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혼전 성관계를 가질 때 혼전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개인의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미혼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거나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미혼모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피임제의 보호도 없이 성교를 하는 것인가?



또는 왜 이들은 피임에 실패하는 것인가? 이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 및 피임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다.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성에 대한 자극이 많은 반면 성이나 피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는 피상적인 성 교육만을 시킬 뿐 구체적으로 남녀의 생리적 차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피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교육시키지 않고 있다. 가정에서 역시 부모 자신의 성이나 피임에 대한 지식 부족과 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자연스러움과 당황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부정확한 성지식이나 피임지식을 갖게 되며 이것이 피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에 대하여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산아제한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이며 성교를 시작하는 연령도 더 늦어지게 되고 첫 성경험을 일찍 가질수록 피임을 하는 경향이 적다.

Murray와 Parks<sup>44)</sup>는 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10대의 혼전 임신으로 미혼모가 많은 것은 학교나 가정에서 구체적인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임신이 안될 것이라든지, 성관계가 빈번하지 않으면 임신이 안된단든지, 결혼을 해야만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다.<sup>45)</sup>

성지식이나 피임지식 외에 피임행동에 영향을 주는 둘째 요인은 성과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이다. 성이란 나쁜 것이고 금기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만 교육을 받은 경우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다음에 다시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두려워하며 임신을 방지하는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몇 번의 성관계가 계속되면서 자신들의 성관계가 하나의 계속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때에야 피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sup>46)</sup>

Oskamp와 Mindich<sup>47)</sup>는 성에 대하여 죄의식과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지극히 수치와 죄의식을 갖고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피임행동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측면은 상대방 남성과의 관계로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성숙한 관계일수록 성관계에 따르는 문제를 예측하고 피임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들을 사용하였다.

### (1) 성격차원 측정 도구

미혼모 집단과 일반 미혼 여성의 성격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현수가 번역한 성인용 한국어판 EYSENCK검사<sup>48)</sup>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에서 신뢰도를 검사한 것으로서 강건성, 내·외향성, 정서성, 허위성 등 성격의 4가지 차원을 확인하기 위한 7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의 신뢰도는  $\alpha = 65.79$ 이다.

### (2) 질문지

미혼모 발생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통하여 필요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 내용은 개인적인 특성 5문항, 가정의 일반적 환경 7문항, 성에 관한 태도 6문항, 성지식 9문항, 피임지식 7문항, 성행동 및 미혼부와의 관계 8문항 등 7개 영역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것으로서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성지식은 진위형의 문제로서 맞게 답한 숫자를 계산하였으며 피임방법에 관한 지식은 4단계로 나누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모른다로 나누어 답하도록 하였다.

성에 관한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들은 Likert Type의 5개 척도로서 전적으로 찬성에 5점에서부터 전적으로 반대에 1점, 무응답에 0점으로 답한 문항의 합을 성에 대한 태도 점수로 처리하였다.

### (3)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유형 검사

부모와 자녀 간의 대인관계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재창 등이 만들어서 청소년문제 종합진단 연구에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항은 16개로서 지배, 적의, 친애, 복종의 차원을 측정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 3. 조사 실시

본 연구는 미혼모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였으므로 본 연구자가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으로서 미혼모를 수시로 상담하고 있는 기관 2개소와 미혼모들의 일시보호기관 3개소를 의도적으로 추출하여 그 기관의 기관장 또는 미혼모 상담부서의 책임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검사

를 직접 실시할 담당 사회사업가들에게 검사에 대한 목적 및 요령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혼모의 신분에 관한 일체의 비밀은 보장을 하여 준다는 것을 관계자가 미혼모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일시보호시설에서 숙식하고 있는 미혼모들은 담당 사회사업가가 5명-10명을 집단으로 모아 질문지에 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일반기관에 상담하러 온 미혼모들은 개별적으로 미혼모의 의사를 물어 질문지를 주고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은 담당 사회사업가가 설명하여 주었다. 미혼모 집단을 위한 조사는 1985년 12월 1일부터 1986년 2월 26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었다.

비교집단은 서울에 1곳 춘천에 1곳의 생산공장과 춘천에 있는 2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그 기관들의 대표에게 협조를 얻어 대상자들에게 직접 이 질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는 비밀보장을 위하여 봉투와 함께 질문지를 배부한 뒤 그 자리에서 응답하여 편지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비교집단조사는 1986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 4. 통계처리

본 연구의 수량적 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hi^2$ 를 추출하였으며, 그 외에 중다상관을 내어 각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수의 크기가 적다.

둘째, 표집된 표본들이 서울과 춘천 등의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 표집과정에서 조사방법의 성격상 국문해득이 가능한 사람을 원칙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학력이 제한된 의도된 표집이었다.

넷째, 입양기관이 미혼모 상담부서나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에 찾아온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상담기관에 오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미혼모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미혼모 발생의 요인은 연구의 구별상 본 연구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져왔던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발생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미혼모 발생요인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들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미혼모 발생요인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 단, 본 연구의 의의는 학력과





〈표8〉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생존 여부	미혼모집단	비교집단
부모님 모두 생존	68(52.8)	89(80.9)
이혼 별거	4(3.1)	0
친아버지만	9(7.1)	2(1.8)
친어머니만	25(18.9)	11(10.0)
친아버지와 계모	6(4.7)	0
친어머니와 계부	2(1.6)	0
부모 사망	12(8.7)	7(6.4)
양부모	4(3.1)	1(0.9)
계	130(100%)	110(100%)

$x^2=25.98$        $df=7$        $P<.01^{**}$

(3) 아버지의 교육 정도

부의 교육 정도는 미혼모 집단과 비교집단이 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표 9 참조〉

그 외에 일반적 환경으로 비교한 아버지의 직업이나 어머니의 교육정도 및 직업, 미혼모가 평가한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미혼모 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9〉 아버지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교육	미혼모 집단	비교집단
전혀 다니지 않음	12(8.8)	9(8.3)
국민학교	28(21.6)	34(31.5)
중학교	39(31.2)	26(24.1)
고등학교	26(20.8)	23(21.3)
대학교	10(8.0)	16(14.8)
모르겠음	12(9.6)	0
계	125(100%)	108(100%)

$x^2=16.01$        $df=5$        $P<.01^{**}$

(4) 부모 - 자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애 점수, 어머니와 자녀의 친애 점수만이 미혼모 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교집단이 미혼모 집단보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더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



하고 있다. <표 10 참조>

이것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애정이 있고 가족이 안정되어 있을 때 성적인 충동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친밀한 관계는 미혼모 예방의 한 가지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표10> 부모-자녀의 관계

구분	미혼모집단			비교집단			F
	인원수	평균	SD	인원수	평균	SD	
부의 지배관계							
부의 지배	130	8.98	3.162	111	9.45	2.48	.231
부 종	130	10.62	3.55	111	11.35	2.830	.103
친 애	130	11.26	4.55	111	12.76	3.455	.008**
적 의	130	8.48	3.78	111	7.58	3.51	.076
모의 지배	130	9.81	2.67	111	9.98	2.33	.631
부 종	130	11.37	3.30	111	11.53	2.77	.631
친 애	130	12.99	3.92	111	14.39	3.02	.004**
적 의	130	7.77	3.34	111	6.94	3.02	.055

### 3. 성에 대한 태도

성의 개방성 문제에 있어서는 미혼모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1%의 수준에서 의미있게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따라서 성에 대한 개방성은 미혼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표11> 성에 대한 태도

구분	미혼모집단			비교집단			F
	인원수	평균	SD	인원수	평균	SD	
성태도							
성태도 총량	130	16.8	4.84	111	14.84	5.08	.01**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양쪽 집단 모두가 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태도도, 그렇다고 진보적인 태도도 아닌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50% 이상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와 같은 정립되지 않은 혼란된 성에 관한 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혼란된 성에 관한 태도는 미혼모뿐 아니라 비교집단의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들은 정립되지 않은 성에 대한 태도로 인하

여 성관계를 갖되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피임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다. < 표 12 참조 >

<표12> 성에 대한 개방성

	미혼모집단	비교집단
전적으로 반대(1~6)	2명(2%)	6명(5%)
약간반대(7~12)	19명(17%)	27명(25%)
그저 그렇다(13~18)	67명(51%)	56명(51%)
약간 찬성(19~24)	33명(23%)	17명(17%)
전적으로 찬성(25~30)	9명(7%)	3명(3%)
계	130명(100%)	109명(100%)

$x^2=10.73$        $df=4$        $P<.05^*$

#### 4. 성지식

성지식에 관하여서는 미혼모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1%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표 12 참조>.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미혼모 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총 성지식 9점 만점에서 4.76과 4.06으로서 인간의 생리 작용과 성과 출산 등에 대하여 양 집단 모두 매우 부족한 성지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이미 출산을 하였거나 임신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지식이 아주 부족하였다.

미혼모 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성지식이 더 많은 것은 성지식이 많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성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었거나, 성에 대하여 비교집단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남녀의 생리적 차이 및 출산, 임신 등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12> 성지식

구분	미혼모집단			비교집단			F
	인원수	평균	SD	인원수	평균	SD	
성지식							
성지식의 총량	130	4.76	1.59	111	4.06	1.54	.01**

#### 5. 피임지식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여도 피임을 하는 경우 미혼모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피임을 하려면 우선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데 미혼모들의 경우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피임지식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참조>

<표13> 피임지식 비교

구분	미혼모집단			비교집단			F
	인원수	평균	SD	인원수	평균	SD	
피임지식 총량	130	15.12	5.27	111	15.10	5.0	.980

<표14> 미혼모의 피임지식

지식정도 피임방법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들어 본 적 이 있다	모른다
먹는 피임약	10(9%)	37(33%)	40(36%)	25(22%)
콘돔 사용법	37(34%)	30(28%)	25(23%)	17(16%)
자궁내 장치	44(40%)	37(34%)	22(20%)	7(6%)
월경 주기법	23(22%)	25(24%)	32(30%)	20(25%)
좌약식	30(35%)	36(31%)	23(21%)	18(17%)
정관수술	38(35%)	34(31%)	22(20%)	14(13%)
질외 사정법	50(47%)	25(24%)	10(15%)	15(14%)

특히 <표14> 에서 보듯이 미혼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먹는 피임약, 월경 주기법, 질좌약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 여성들의 적극적 피임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표 14 참조>

미혼모들의 경우 성관계시 피임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피임에 대해서 물렸거나, 임신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거나 임신이 안되는 안전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피임

<표15> 피임을 안한 이유

이유	인원수	비율(%)
아기가 갖고 싶어서	18	15
피임에 대해 잘 몰라서	12	10
임신되리라고 생각지 않음	45	37
아기 아버지의 피임 거부	3	2
피임도구 사용할 시간적 여유없음	13	11
피임이 귀찮아서	1	1
임신이 안되는 안전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14	11
강 간	10	8
기 타	8	7
피임을 했으나 임신이 됨	7	7
계	123	100





## 제 언

미혼 여성의 혼전 성관계는 사회적인 여러 여건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경우로 보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따라서 미혼 여성의 혼전 임신 및 미혼모 또는 사생아의 발생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사회나 국가 또는 기성세대는 이 현상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미혼모가 발생된 후에 미혼모를 죄인 시하면서 미혼모의 분만비 보조나 사생아의 입양 처리 및 시설 입소 대책과 같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나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 1. 가족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서비스의 제공

① 복지시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직장별, 학교별 또는 지역단위의 복지관 별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특히 산업체의 경우 입사 당시 성교육과 아울러 미혼 여성들이 당면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그리고 미혼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시설, 제도 여가선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겠다.

②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정적인 기숙사나 Group Home 또는 아파트 등의 시설과 아울러 전문상담요원과 잘 훈련된 사회사업가들을 고용하여 따뜻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2. 결손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보조 및 서비스의 제공

① 결손가족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탁아 서비스, 상담 등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② 결손가족의 부모나 자녀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상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역사회사업기관이나 YMCA, YWCA 또는 여성회관 등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히 구조적인 가정 결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학교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하겠다.

## 3. 가정의 강화 및 부모를 위한 교육의 실시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발달 및 심리를 이해하게 하고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자

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또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교, 교회, 또는 지역단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4. 성교육의 강화

① 국민학교부터 전통적인 성도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르쳐야 한다.

② 중학교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남녀의 생리의 차이 및 피임방법을 관하여서 남녀 모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③ 산업체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정규적인 교양강좌나 회보 등을 통하여 성과 피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5. 상담실 및 시술소 설치

피임정보를 원하거나 유산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각 지역마다 있어야 한다.

#### 6. 피임도구 판매의 다양화

① 콘돔, 질좌약, 또는 먹는 피임약 등을 슈퍼마켓이나 자동머신을 통하여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관이나 호텔 등은 방마다 피임도구를 반드시 구비해 놓도록 한다.

#### 7. 인공 임신중절을 위한 재정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는 무료로 유산수술을 해주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 8. 각 지역마다 전화상담 안내 설치

미혼 여성들의 경우 성문제로 상담을 하러 가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전화만 들면 기본적인 성과 피임에 관한 지식을 녹음기를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원과 더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녹음 후에도 전화를 계속 들고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상담원이 더 구체적으로 전화 내지 내방상담을 하도록 유도한다.

#### 9. 적극적인 홍보







- 1965, p.21.
- 23) Butnam, Jean and Kamm, Jane, *The Soci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World of the Teen—Age Girl*, Mineographed,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Research on Utiliz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65.
- 24) Hodgson, J.E : Major Complication of 20, 248 Consecution First Trimester Abortions, *Problems of Fragmental Care*, Adv. plann, parent, 9 : 52, 1.
- 25) Vincent, Clark, *Unmarried Mothers*, N.Y. : The Free Press, 1961, p.102.
- 26) Bernstein, Role, "Are We still Stereotyping the Unmarried Mother ?" *Social Work*, V. NO 3, 1960, p. 24.
- 27) 정 원식·박 성수, 「카운슬링의 원리」, 교육과학사, 1982, p.12.
- 28) N.L. Todlen and J.E. Marcia, "Ego Identity Status an Response to Conformity Pressure in College Woman," *Journal 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o 26, 1973, pp. 287—294.
- 29) F. Furstenberg. 윗 글, p. 41.
- 30) Schmideberg, Melitta, "Psychiatric—Social Factors in Young Unmarried Mothers", *Social Casework*, p.3, 1951.
- 31) Young, Leontine, *Out Of Wedlock*, N.Y. : Macgraw— Hill, 1954.
- 32) 이 재창 외 4인, 청소년 문제 종합 진단 연구 : 자아개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1981, p.32—33.
- 33) Doms, Theodora, *Teenage Pregnancy in a Family Context*, Philadelphia : Temple Univ. press, 1981.
- 34) Clothier, Florence,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Unmarried parent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XIII, 1943, p. 548.
- 35) 홍 대식역, 사회심리학, 박영사, 1986, pp.334—335.
- 36) Doma L. Farnsworth, Structural Morality and the Dilema of the Colleges In Alvin E, Winder (ed), *Adolescence : Contemporary Studies*, New York : D. Van Mstrand Co., p.199.
- 37) 정 원식 외 4인,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p. 54.
- 38) 최 상진, "청소년과 이성교제"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년, p.369. 84%의 여학생이 순결을 잃은 여성을 동정하거나 죄인시함.

- 39) 정 원식 외4인, 윗글 p.55. 근로청소년 중 69%만이 남녀의 혼전동거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고 20%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 40) 정 원식 외 4인, 윗 글, p.55. 여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반대한 사람은 8%이고 찬성은 83%이었다.
- 41) 학생생활연구소, 신입생 의식구조 조사,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5년 2월, pp.19-22.
- 42) 학생생활연구소, 윗 글, pp. 19-22.
- 43) Vincent, Clack, 윗 글, pp. 50.
- 44) Murray, Jane & Parks, Barbara, "Teenage Pregnancy in Developed Country :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II. NO 2, March/April, 1985, pp.53-63. 미국이 다른 36개국의 선진국보다 왜 더 심대의 임신률과 유산률이 높은가를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연구된 논문이다.
- 45) Allegeier, A. R. & Byrne, D. Attraction toward the opposite sex as a determination of physical proxim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0, 1973, p. 213-19.
- 46) Fisher, J. D. and Byrne, D. "Too close for comfort : Sex Differences in Response to Invasions of Persona Spa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975, pp.15-21.
- 47) OSKAMP, M.A. & Mindich, D. "Sex and Contraception," *Adolescents Sex and Contraception*, Byrne. D. & Fisher W. A(EDS), New York : Mcgraw-Hiill, 1981.
- 48) Eysenck, Sybil B. and Lee, Hyun Soo, 「성격차원 검사요강」, 중앙적성출판, 1985 ; 이 현수, "성격특징의 구조요인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제27집 (인문과학편), 1983.
- 49) Chilman, Catherine, 윗글, p.493.
- 50) 한국여성개발원, 윗 글, pp.186-200.